



돼지 경락가격 동향과 전망

축산물등급판정소 서울지소
과장 안광영, 대리 김동술

1. 서두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업 모든 분야에 엄청난 시련과 타격을 주었다. 이미 대만의 구제역 발생에서 그 피해를 간접 경험한 국내 양축가들은 직접적인 피해와 심적 우려도 크다.

우리 양돈산업은 대일 수출확대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구제역 발생 직후 축산물 수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내수에 의존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양돈농가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제역 재발방지에 노력한 결과 지난 9.19일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직도 수출을 위해서는 돼지 콜레라 퇴치 등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 4월 이후에는 대일 수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금년 4/4분기 돼지 사육두수가 850만두 이상 유지되고 추석이후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돈가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농협서울공판장의 돼지 경락가격을 토대로 4/4분기 가격을 전망하고 정부와 관련단체 및 양돈농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지난해 농협서울공판장의 돼지도체 판정두수는 약 630천두로 전국대비 (13,000천두) 4.7%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경락가격은 모돈을 포함하여 2,336원/kg로 99년(2,870원) 대비 534원이 내렸다

월별 출하 및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200년 3~4월에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홍수 출하로 가격은 2,300원대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5~6월 조기도축에 따른 공급부족과 소비증가로 인해 비육돈은 3,000원대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7월부터 도축두수 증가와 수출 중단에 따른 공급량 증가의 영향이 가격 하락세로 이어지다가 추석이후 11월부터 정부의 모돈 감축 및 수매정책에 힘입어 12월에는 2,162원까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0년을 마감하였다

2001. 1~3월 돼지 경락가격은 지난해 가격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2,100원대의 낮은 가격을 형성하였으나, 4~6월 판정두수는 감소와 유럽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돈육 소비증가로 2,900원까지 올라 연중 최고가격을 보였다. 7~8월은 소폭의 가격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대인 2,500~2,600원대를 유지하면서 사육 및

표 1. 2000.1. ~ 2001. 9. 월별 돼지 판정두수 및 평균 경락가격 (단위 : 천두,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0년													
두수	57	47	60	52	49	44	47	53	53	63	59	58	642
가격	2,939	2,741	2,509	2,352	2,834	2,875	2,410	2,265	1,818	1,563	1,880	2,162	2,335
2001년													
두수	52	50	54	50	50	48	47	52	57	-	-	-	460
가격	2,217	2,125	2,150	2,613	2,887	2,964	2,652	2,539	2,266	-	-	-	2,479

관정두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이후 하절기를 지난 비육돈의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관정두수의 꾸준한 증가와 소비위축으로 돈가는 점진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추석 1주일 전부터 큰 폭의 가격 하락세를 보여 2,000원대 이하로 폭락하였다.

2001년 1~9월까지 관정두수는 월평균 51천두로 전년(50천두) 동기대비 2%정도 증가하였으며, 경락가격은 2,479원으로 전년 동기대비(2,521원)에서 1.7%의 하락을 보였다.

정부는 4/4분기 돼지 사육두수를 850만두 이상으로 전망함에 따라 전년 최저가격을 보였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당분간 돼지가격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우고기 판매가격의 폭등과 일본의 광우병 발생 및 소비촉진 홍보 등으로 인해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한다면 전년도 보다 높은 가격을 기대해 볼만도 하다.

그러나 4/4분기 돈가는 전반적인 하락세 기조에서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돈가하락시 대응방안

가격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 즉, 수요·공급원칙에 의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수요증가 및 소비촉진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대책 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

1. 정부 및 관련단체

정부와 양돈관련단체는 돈가 안정을 위하여 필리핀, 러시아 등 기존 수출 물량에 대한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제주도산 돈육의 대일수출 조기 실현 및 내년 상반기 대일돈육 수출 재개에 대비한 다각적인 준비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된다. 특히, 방역관리(구제역 재발방지 및 콜레라 발생방지)는 수출과 관련된 절대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과 홍보로 주요 질병에 대한 청정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비인기 부위(후지 등)의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리 개발과 단체급식 및 군납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인기부위(삼겹살)에 대한 수입대체의 모색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대북 쌀 지원과 함께 돼지고기도 일정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돈육소비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생산자

생산농가에서는 돈가 하락에 대비한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해서는 규격돈 출하비율 향상(현행 45% 70%), 이상육(PSE육) 발생비율 감소 및 철저한 비육후기 처리 등으로 돈육의 안전성·위생·맛을 높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도 요구된다.

등급판정소에서는 출하자들에게 다양한 축산정보와 신속한 판정결과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용방법은 회원가입(무료)후 출하축에 대한 자료검색과 아울러 농장관리에 필요한 사양지표 및 종돈개량 등 유익한 정보로 활용하며, 계속적으로 농장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또한 지금부터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콜레라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로 대일 돈육수출 재개에 대비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4. 결론

금년 4/4분기 이후 돈가는 전반적인 약세가 예상되지만,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로 소비기반 확충 및 돈가 안정을 위하여 정부, 양돈관련단체, 생산농가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돈가 약세에 따른 어려움은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상반기중 대일 돈육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되고 본격적인 돈육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2/4분기 이후 돈가는 안정적인 수익보장과 함께 양돈산업은 주요 수출품목으로서도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